

한옥 고치는 책 I - 대청과 방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2013.

이민경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한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한옥생활을 꿈꾸는 수요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옥은 좁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속적으로 한옥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도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 중인 한옥의 성공적인 변화 모습들을 소개하여 한옥에 대한 좋은 인식을 유도하고 수요를 증대시키는 매체로서 〈한옥 고치는 책〉을 기획하였다.

기획: 〈한옥 고치는 책〉 3부작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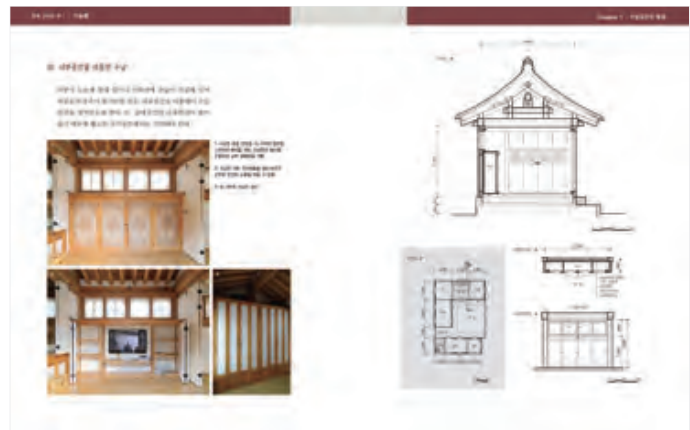
〈한옥 고치는 책〉은 한옥의 거주자와 수요자들의 요구에 대응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로 건축된 사례를 중심으로 풍부한 도면과 사진, 시공방법 및 제품정보를 함께 수록하였다. 책자에 실린 정보를 누구나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조를 얻어 양질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한옥 고치는 책〉은 3부작으로 구성된다. 한옥의 공간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대청과 방을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다. 두 번째 책에서는 주방·욕실·설비 등 서비스 공간을, 세 번째 책에서는 마당·담장·대문 등 외부공간을 대상으로 사례를 소개한다. 이에 따라 〈한옥 고치는 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한 권씩 시리즈로 발간된다.

그중 〈한옥 고치는 책 I〉은 한옥의 대청과 방이 현대화되면



한옥의 고유한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종래의 취약점을 극복하여 세련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들을 통해 한옥을
짓거나 고치는 데 이 책이 유용하게
쓰이기를 기대한다.



서 새롭게 요구되는 변화들을 다루었다. 이에 더하여 대청과 방의 의미나 공간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사용재료의 종류와 특성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였다.

한옥의 현대화를 위한 대청과 방 고치기 가이드

세부적으로 '1.소개편'에서는 한옥의 현대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전통한옥의 생활공간인 방과 대청의 이해를 돕고자 온돌과 마루의 유래, 대청과 방의 사회적·공간적 의미와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2.기능편'에서는 반외부적 공간이었던 대청의 실내화, 생활양식의 변화와 생활용품의 증가로 인한 공간의 협소함, 현관의 요구 등 현대인의 생활에 맞추어 요구되는 공간변화에 대해 검토하였다. 공간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별동을 증축하거나 마당의 상부를 덮어 내부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결방안의 주안점은 한옥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며 현대적 편의성을 반영한 것으로, 바닥·벽·선반·다락 등을 이용한 수납공간의 설치와 지하공간을 활용한 수직증축, 한옥의 전통미를 훼손하지 않는 현관 및 신발장 설치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3.성능편'에는 한옥에서 관심이 크게 집중되는 바닥·벽·지붕·창호에서의 단열 및 기밀 성능 확보에 관한 해결책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한옥은 본디 숨 쉬는 구조로 단열에 대한 고려

가 취약하다. 또한 목부재의 노후화, 수축과 팽창에 따른 벽·창호·지붕 등의 틈으로부터 들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단열에 약한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한옥거주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현대적 재료와 기술을 적용한 바닥 난방 설치 △벽체와 지붕의 단열 △이중창 설치 등 단열과 기밀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4.제품정보편'에서는 한옥을 짓거나 고치는 데 사용되는 재료들을 목재·벽체(단열재 포함)·창호·마감재·조명으로 구분하여 부재와 제품의 종류 및 특징, 제품 사진과 시공 사진을 수록하였다. 특히 한옥의 거주자와 수요자들이 실제 공사 시 취사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의 정보를 수록하였다.

〈한옥 고치는 책〉의 주요 독자는 한옥 거주를 희망하는 국민들과 현재 한옥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한옥의 고유한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종래의 취약점을 극복하여 세련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들을 통해 한옥을 짓거나 고치는 데 이 책이 유용하게 쓰이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한옥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과 한옥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내일의 건축

이토 도요, 안그라픽스, 2014.

엄윤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건축을 걷다

김병윤, 기문당, 2014.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의 한국관은 국가관에 주어지는 황금사자상을 받으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 가운데 2012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한국관과 일본관의 커미셔너였던 김병윤과 이토 도요의 책이 비슷한 시기에 발간되어 눈길을 끈다. 두 권의 책은 건축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래의 건축을 생각하다 <내일의 건축>*

<내일의 건축>은 3·11대지진 이후의 건축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한 형식이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 책은 출판사의 제의로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건축의 궤적과 피해 지역에서의 활동, 대지진 이후의 건축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 자료에 가필과 수정을 통하여 출판하였다. 그래서인지 이 책을 읽으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느낌이 생생하다.

책은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3·11 그날의 풍경'은 대지진 이후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자가 보낸 2개의 이메일을 소개한다.

첫 메일은 3월 23일 센다이 시장과 이토 도요 자신이 설계한 센다이 미디어테크의 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다. 다음 메일은 센다이를 다녀온 이후인 4월 3일 야마모토 리켄, 나이토 히로시, 구마 겐고, 세지마 가즈요 등 4명의 건축가들에게 보낸 것이다. 추후 진행방향을 설명하는 메일이다. 사고가 있고 즉각적인 행동과 조치들이 취해지는 모습 속에서 이토 도요가 생각하는 건축가와 사회에 대한 고민, 자연과 건축,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살펴볼 수 있다.

2장 '가마이시 부흥 프로젝트'는 피해지역 중 하나인 가마이시의 부흥계획에 대한 소개 글이다. 가마이시 지역계획의 관점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적 차원에서의 고민 과정을 설명한다. 기존의 토

지이용계획방식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언급한다.

3장 '모두의 집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건축 프로젝트다. '모두의 집'은 사고를 겪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의미로서의 명칭이다. 또 가설주택에 수용된 사람들에게 대화와 식사를 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된다. 건축가의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인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건축가와 사용하는 사람 간의 '심리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기록하여 베니스 비엔날레에 전시하게 되었다.

4장 '이토건축학교'는 2011년 이토 도요가 새로운 건축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학교에 대한 이야기로, 기존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언급한다. 5장 '내가 걸어온 길'에서는 건축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돌아보며 사회와 건축의 관계, 건축의 공공성, 공공건축, 이미지로서의 건축, 자연에 가까운 건축 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6장 '미래의 건축을 생각하다'에서 그동안의 건축에 대한 반성과 향후 건축의 방향을 제시하며 책은 마무리된다.

2012년 한국 건축의 모습, <건축을 걷다>

<건축을 걷다>는 2012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전시결과 보고서 형식이다. 행사 전체의 주제가 'Common Ground'로 설정된 상황에서 한국관이 정한 주제는 '건축을 걷다'였다.

8명의 참여 작가(김태안, 김현수, 박승홍, 박진택*, 이상림, 오영욱, 한종률, 윤창기)와 3명의 커미셔너(김병윤, 전영훈, 유현준), 그리고 1명의 어드바이저(피터 헤레토)의 글들을 통하여 각자의 입장에서 당시의 전시를 정리하고 있다.

커미셔너는 한국의 건축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건축을 걷다'를 5개의 소주제(Scenographic background to five walks - POST MAX,



POST GRAY, ENGRAVING, EMOTIONS, ENGRAVING TECTONICS, WAT TACTILITY)로 구성하고 다시 8명의 작가가 만들어 내는 8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소주제는 작가의 작업을 위한 느슨한 틀로서만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주제설명은 담겨 있지 않다.

전시는 기존의 패널과 모델의 방식이 아닌 영상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시각이 전제된 '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걷다'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움직임, 소리를 듣는 것, 체험 등 다양한 신체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유현준 커미셔너의 언급^{※※※}처럼 전시는 멈추어 있지 않고 매번 방문할 때마다 다른 전시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방식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시 자체가 이미 사라져 버렸고, 책에서도 전시공간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도면이나 화보들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다. 글을 통하여 전시 공간을 경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주제에 대한 생각 정도만 볼 수 있다는 한계는 있지만, 2012년 한국 건축의 상황과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해 본다.

당시의 일본관과 한국관이 제시한 주제와 건축가들의 이야기는 2014년 지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2014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관은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이미 한국관의 도록 『Venice Biennale 2014 - Crow's Eye View』(아카라이프,

2014)가 출판되었고, 국내외의 다양한 신문과 잡지 등에서 한국관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그러나 수상만 바라보지 말고 전시가 담고자 했던 것, 그들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다시 잘 살펴봐야 한다. 이 책은 2014년 한국건축의 모습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여 줄 것이다.

※

일본에서 2012년 10월 출간된
“あの日からの建築”의 한국의 번역출판본

※※

박진택은 전시 이후에 별도의 단행본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발간한 바 있다.
『존재사건』(2013, SPACETIME)

※※※

“영상물들은 때로는 시각적으로, 때로는 청각적으로 독립적 혹은 충돌적으로 하나의 전시공간 안에서 비발발처럼 뒤섞여서 비껴져 있다. (중략) 방문자가 방문했던 시각에 그 공간에 전시되는 영상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전시로 ‘편집’되어지는 것이다.”